

지역 특화 관광거점 ‘글로벌 관광특구’로 경주와 해운대 선정

- ‘글로벌 관광특구’ 2개소에 2년간 국비 각 30억 원 지원
- 관광객 편의 서비스 강화와 특화 브랜드 개발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 지역 확산 유도 및 특화 관광거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서울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특화된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경주 관광특구와 해운대 관광특구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특구에는 2년간 각 국비 30억 원을 투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 강화와 특화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국정과제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의 일환인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관광특구를 발굴·지원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와 우수한 관광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관광특구를 선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의 성공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접수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 콘텐츠 경쟁력, 국제 관광 수용 태세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경주 관광특구와 해운대 관광특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하루 더 머물며 황금빛 환상에 빠져드는 경주 글로벌 관광특구,
낮과 밤, 일과 휴양이 어우러져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경주 관광특구는 풍부한 신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하루 더 머물며

황금빛 환상에 빠져드는 경주 글로벌 관광특구'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신라를 주제로 한 야간 관광과 미식 체험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택시와 관광지 순환버스를 확충한다.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수용 태세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해운대 관광특구는 해양관광과 마이스*, 쇼핑 기반 시설이 집적된 곳으로서, 통합 브랜드 개발, 정기적 주야간 체험 특화콘텐츠 활성화, 개방형 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숙박 상생 협약 인증제를 시행해 인증업소 이용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스마트 관광 안내·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 관리를 강화해 '낮과 밤, 일과 휴양이 어우러져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경주와 해운대가 ‘글로벌 관광특구’로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의 대표 성공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심민석 (044-203-2891)
		담당자	사무관	최원영 (044-203-2898)

